

UC 탐방 -

#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공략한다

엠케이전자 송기룡 대표

지구를 25바퀴나 돌 수 있는 110만km에 달하는 본딩와이어를 지난 한해 동안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이 있다. 국내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엠케이전자가 그 주인공이다.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글로벌리더로 부상할 엠케이전자의 청사진 설계에 한창인 송기룡 대표에게서 경영의 진수를 듣는다.

## 한

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끌어올린 배경에는 토종 벤처기업의 든든한 지원사격이 뒷받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증착제, 타겟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엠케이전자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벤처근성을 인정받는 회사다. 일본 수입품이 전부이던 시절 자체 기술로 본딩와이어 생산에 성공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한 획을 그었다. 1997년 코스닥 상장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고, 전문 경영인 체제에 돌입한 2002년부터는 연평균 30% 성장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매해 달성하고 있는 중이다. 고가(高價)의 금을 재료로 사용하면서도 작년 한해 10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사이버 R&D, 독보적 전략으로 부상**  
엠케이전자의 활약상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는 송기룡 대표의 역할이 적지 않다. 그는 2004년 취임한 이후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쇄신을 거듭한 끝에 엠케이전자가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정궤도에 진입시켰다.

“반도체 부품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은 제품군에 속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로라하는 해외기업들과의 전면전을 위해 혁신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 기술 마케팅,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혁신 전략이 적중하면서 엠케이전자의 해외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1982년 창업 이래 국내시장에만 집중되어 있던 역량을 더 넓은 세계시장에서 분출함으로써 글로벌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목표에 걸맞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10개 국가에 16개의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대만사무소와 상해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해외영업 네트워크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엠케이전자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위이지만, 2009년엔 2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거침없이 밝힐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다.

엠케이전자가 두각을 나타내는 데에는 탄탄한 경영전략도 일조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커넥션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고객과 손을 잡고 공동개발에 나서는가 하면, 국내외 우수대학 및 정부산하기관과 산학협동을 통해 지속적인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브레인 네트워크’ 전략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난 기술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구리나 합금을 이용한 신소재 본딩와이어, 극세선 가공 및 열처리기술 등은 공동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7월 캐나다 마이크로본즈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현재 진행 중인 절연 골드와이어 개발 프로젝트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정한 리더십은 기술력을 응용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 바로 거기에 착안해 커넥션을 모토로 삼게 됐고, 핵심 브레인을 네트워크하는 일종의 ‘사이버 R&D’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탁월한 경영전략은 제품생산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된다. 6시그마 경영혁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결과 제품의 품질불량이 확연히 개선된 것은 물론이고, 생산성 또한 눈에 띄게 증가되었다. 지난 2년간 단 6%의 생산인력 충원으로 80%의 물량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엠케이전자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문화 마련에도 주력했다. 대기업에 비해 다소 위축되기 쉬운 회사의 분위기를 북돋우고,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벤처의 장점을 극대화한 ‘단순화, 유연성, 스피드’이다. 핵심을 파고드는 단순성, 상황 변화에 재빨리 대처하는 유연성,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기업의 핵심문화로 내세운 이후 직원들의 역량도 크게 강화됐다.

“경영혁신과 기업문화 형성은 엠케이전자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벤처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전력하도록 해주는 밑거름이지요.”

**엠케이전자의 진가는 이제부터 다**  
나노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송기룡 대표는 분주하다. 50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개념 반도체가 등장하는 등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본딩와이어의 기능도 한층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도체 패키지 가운데 90%에 달하는 제품이 본딩와이어 방식을 택하고 있는 한, 반도체 혁명에 본딩와이어 기술이 감당해야 할 영역 또한 분명할 것이라는 게 송대표의 견해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공동개발 시스템을 잘 구현한다면 반도체 혁명 중심에 엠케이전자가 자리하리란 예측도 가능한 상황이다. 4~5년 후 엠케이전자의 위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는 호언장담 역시 무리는 아니다.

“올해의 사업은 씨를 뿌리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을 대체할 만한 합금와이어와 구리와이어 개발에 성공했고, 솔더볼의 본격적인 거래처 확보에 나섰지요. 그러니 이제 수확하는 일만 남은 셈입니다. 앞으로 4~5년 뒤에는 본딩와이어의 세계 선두주자,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엠케이전자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그리고 송기룡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환상적인 삼박자 호흡은 엠케이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호령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려 주고 있다.

### ● 엠케이전자(MKE)의 비전

**비전** - We All Win™(회사, 종업원, 주주, 고객, 거래처 등 모두 이기는 비전을 추구한다)

**미션** - MKE Adds RealValue™ to our Customers (고객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선사한다)

**정책** - Beyond the Perfection™(모든 측면에서 완벽을 뛰어넘는다)